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 역할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

여 진 경(신라대학교 석사) · 전 영 주(신라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와 아들의 의사소통의 내용과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보다 나은 관계의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신시가지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척도는 김현옥(2002)이 수정, 번안한 Canfield(1995)의 아버지 역할 수행 척도(Fathering Practices Scale:FPS)와 의사소통 내용과 질은 이기숙(198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여 ANOVA 분석, 교차표(X^2) 분석을 통해 결과를 산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 자녀이해도, 자녀에게 애정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 아버지의 자녀양육역할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아버지의 자녀교육역할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평균차를 나타내어 아들이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채널선택자유성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의사소통유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이해도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평균차를 나타내어 아들이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덜 개방적이 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아들의 채널방향성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상호방향적인 형태를, 중학생은 아버지가 주로 송신하거나 상호방향적인 형태를 주로 취한다.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내용 및 빈도에 대해서는 이성관계, 성적 및 진로, 시사에 대해서는 아들의 발달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나의 일상, 아버지의 일상, 집안 행사, 오락 및 여가활동, 생활철학, 종교, 성교육, 친척 및 가족관계, 일상의 감정교환, 연애가 소식에 대해서는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평균차를 나타내어 아들이 성장할수록, 아버지와 아들의 의사소통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살펴보면,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의 발달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에 적절한 아버지의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어진다.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두세대를 함께 대상으로 하여 관계의 차이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